

조선 후기 회인시(懷人詩)의 인물 형상화 방식

김석준(金奭準)의 회인시를 중심으로

김동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한국한문학 전공
sky200106@hanmail.net

I. 머리말

II. 김석준 회인시의 창작 배경

III. 김석준 회인시의 인물 형상화 방식

IV. 맺음말

I. 머리말

조선 후기, 중인층 문예인들은 상당한 경제적 부와 문학적 성취를 이루었다. 그들은 활발한 시사(詩社) 활동으로 자신들만의 시선집(詩選集)을 엮어내기도 했으며, 활동범위를 넓혀 사대부 계층과 시를 주고받기도 하였다.¹⁾ 해외 활동이 많은 역관 계통의 중인들은 외국 인물과도 교류했는데, 회인시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창작되었다.

‘회인(懷人)’이라는 말은 『시경』 〈권이〉의 ‘嗟我懷人，寘彼周行’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이후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주제는 수많은 시인에 의해 창작되어왔다. 당대 이백(李白, 701-762)의 〈자야오가(子夜吳歌)〉²⁾는 그 그리움의 감정을 잘 표현한 시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회인시는 그리워하는 인물을 제재(題材)로 삼아 지은 시로, 청대 문인인 왕사정(王士禛, 1634-1711)과 장사전(蔣士銓, 1725-1785)이 처음으로 지은 것이다. 회인시는 왕사정이 지은 〈세모회인삼십이수(歲暮懷人三十二首)〉의 7언 절구 형태와 장사전이 지은 〈회인시십이수(懷人詩十二首)〉의 5언 고시(6구) 두 가지 형태가 있다. 또한 한 수에 한 명의 인물을 대상으로 삼되 연작의 형태로 복수의 인물을 다룬다. 시를 지을 시점에 대상 인물이 생존하지 않은 경우도 있으나, 반드시 동시대에 교류가 있었던 인물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회고시(懷古詩)와 구분된다.

박제가(朴齊家, 1750-1805)는 왕사정의 시를 본뜬 〈희방왕어양세모회인(戲倣王漁洋歲暮懷人)〉 60수, 장사전의 시를 본뜬 〈회인시방장심여(懷人詩仿蔣心餘)〉 50수 및 〈속회인시(續懷人詩)〉 18수로 총 128수의 회인시를 지었다. 이후 이상적과 김석준을 거치면서 대상이 점차 확대되는 경향을 보인다.³⁾ 이상적은 1828년의 〈회인시(懷人詩)〉에서 28인, 1857년의 〈속회인시(續懷人詩)〉에서 61인, 1859년 〈서소편(西笑篇)〉에서 16인의 인물을 읊었다. 중복되는 인물을 제외하면 99인에 달한다.⁴⁾ 김석준의

1) 강명관, 『조선 후기 여향문학 연구』(창작과비평사, 1997), 62쪽 참조; 안대회, 『조선 후기 시화사』(소명출판, 2000), 29쪽 참조.

2)李白, 『李太白文集』. “長安一片月，萬戶擣衣聲。秋風吹不盡，總是玉關情。”

3) 김용태, 「옥수 조면호의 한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4), 87쪽.

4) 이춘희, 「우선 이상적과 만청 문인의 문학교류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05).

『홍약루회인시록』은 국내외 인물 82인을 다뤘고, 『홍약루속회인시록』은 국내 인물 119인을 다뤄 모두 201인의 인물이 등장한다.⁵⁾

조선 후기 회인시의 작자는 대체로 김정희 계열 문인과 중인 출신인 역관 계층이었으며, 이들은 스승·제자·인척·친구 등으로 그 관계가 얽혀, 서로의 회인시에 교차하며 등장하고 있다.⁶⁾ 예를 들면 이유원은 김택영의 회인시에, 김택영은 황현의 회인시에 나온다. 회인시는 작자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를 고스란히 보여주어 당시 문예인들의 교유 양상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회인시는 자신의 인적 네트워크를 재확인하여 동류의식을 강화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산물로 볼 수 있다. 그중에서도 김석준의 회인시는 시로 쓴 19세기 명사들의 인물지라는 성격을 지닌다.⁷⁾ 현재 이상적, 조희룡, 조면호, 박제가, 남병철의 회인시가 연구된 바 있다.⁸⁾ 이 글에서는 회인시 작가 중 가장 많은 작품을 남기고 두 차례에 걸쳐 책으로 엮은 김석준 회인시의 인물형상화 방식과 특징을 살피고자 한다. 다만 회인시에 등장하는 201인에 대한 분석은 뒤로 미루고자 한다.

II. 김석준 회인시의 창작 배경

김석준의 본관은 선산이며, 자는 희보(姬保), 호는 소당(小棠)·효리재(孝里齋)·묵지도인(墨指道人)·연백당(研白堂)이다. 왜어역관 김계운(金

5) 이후 『홍약루회인시록(紅藥樓懷人詩錄)』은 『회인시록(懷人詩錄)』으로, 『홍약루속회인시록(紅藥樓續懷人詩錄)』은 『속회인시록(續懷人詩錄)』으로 약칭하겠다.

6) 박제가를 시작으로, *조수삼(趙秀三, 1762-1849), 서유본(徐有本, 1762-1822), *김정희(金正喜, 1786-1856), *조희룡(趙熙龍, 1789-1866), *나기(羅岐, 1828-1874), 조면호(趙冕鎬, 1803-1887), *이상적(李尙迪, 1804-1865), *이유원(李裕元, 1814-1888), *남병철(南秉哲, 1817-1863), 강위(姜瑋, 1820-1884), *김택영(金澤榮, 1850-1927), 김석준(金奭準, 1831-1915), 황현(黃玹, 1855-1910), *김병선(金秉善, 1830-1891), *변원규(卞元圭, ?-?), 이중하(李重夏, 1846-1917) 등이 회인시를 지었다. 김석준의 회인시에 등장하는 인물은 ‘*’로 표시했다.

7) 한영규, 「말년 제자 김석준의 추사와 실기(實記)」, 『조희룡과 추사와 중인의 시대』(학자원, 2012), 92쪽.

8) 정후수, 「李尙迪의 〈懷人時〉考」, 『한성어문학』 6(1987); 한영규, 「19세기 회인시의 양상과 조희룡의 〈회인절구〉」, 『반교어문연구』 6집(1995); 김용태, 앞의 논문; 정일남, 「박제가 회인시 연구」, 『한국한문학회연구』 36집(2005); 박종훈, 「조정 박제가의 회인시 소고」, 『한국언어문화』 30집(2006); 한영규, 「남병철 회인시 연구」, 『한문교육연구』 31호(2008).

繼運)의 아들로, 다섯 차례에 걸쳐 연행을 다녀왔으며 여러 차례 일본을 다녀온 정황이 보인다.⁹⁾ 김현기(金玄錡)와 이상적, 윤정기(尹廷琦, 1814-1879)에게 시를 배웠으며, 일찍부터 서예에 힘을 쏟아 안진경체와 북조(北朝)의 예법(隸法)에 뛰어났고, 지두서(指頭書)에도 일가를 이뤘다. 그는 추사의 만년에 지우(知遇)를 입어¹⁰⁾ 여러 차례 글씨를 받았고, 아끼던 벼루를 얻기도 했다.¹¹⁾

그는 평생 두 차례 회인시를 썼다. 『회인시록』은 1869년에, 『속회인시록』은 1903년에 지었으며 두 작품의 시간차는 35년이다. 『회인시록』은 상·하권으로 나뉘어 있으며, 상권은 국내 인물 65인을, 하권은 해외 인물 17인을 다루고 있다. 제목으로 상대방의 성과 호, 이름을 순서대로 표시한 것은 두 시집이 동일한데, 『속회인시록』에서는 관직을 부기했다. 『속회인시록』은 국내 인물 119인을 다루고 있는데 서문 뒷부분에 『續懷人詩錄卷上』이라고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상·하권으로 나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하권은 없다. 바로 그 뒤에 김윤식(金允植), 김득련(金得鍊), 고영철(高永喆), 김태석(金台錫), 박겸재(朴謙載)가 쓴 발문이 차례로 실려 있어서 하권이 있다고 확정 짓기도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회인시록』과 『속회인시록』의 작품 수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발생한다. 김석준은 『속회인시록』의 〈자서(自序)〉에서 『회인시록』은 정확히 82수라고 했으나, 『속회인시록』은 “一百餘首”라는 불분명한 숫자를 제시했다. 『속회인시록』의 발문을 살펴보면, 김윤식은 “召堂老人, 作懷人詩, 前後近三百首”라고 했고, 박겸재는 “其詩, 乃懷人詩, 二百四十篇也”라고 했다. 300수라고 말한 김윤식과 240수라고 말한 박겸재의 말 중에 무엇이 정확한지를 따지지 않더라도 현재 남아 있는 201수와는 차이가 크다. 만약 『속회인시록』의 하권이 존재한다면 『회인시록』의 체제와 비교해볼 때, 약 40인 이상의 해외 인물을 다뤘을 것이다.¹²⁾

9) 김석준의 생애와 시대인식에 대해서는 서한석, 「김석준과 『효리재일집』에 대하여」, 『한문학보』 21집(2009)에서 자세히 밝혔다.

10) 김정희, 『阮堂集』 권4, 「書牘」, 〈與金君 爽準〉. “君之來如盈, 君之去如虛.”

11) 한영규, 「추사의 말년 제자 김석준의 『연백당초집(研白堂初集)』」, 『문헌과 해석』 40집(2007), 199쪽.

12) 『홍약루속회인시록』의 하권이 존재하는데 사라진 것이라면, 그 이유는 일본 측 인물 때문으로 추측된다. 김석준의 부친 김계운은 왜어역관으로 일본에 자주 왕래하여 그에 대한 정보가 풍부했으며, 김석준은 〈화국죽지사(和國竹枝詞)〉로 일본의 풍물을 읊기도 하였다. 그는 이 작품에서 일본에 대한 높은 수준의 정보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홍약루속회인시록』에 있는 조선 인물 중에는 친일행적을 한 인물로 분류되는 이가

내가 갑자년 이전에 썼던 시는 모두 우선(이상적) 선생께서 바로잡아주셨다. 그런데 을축년(1865) 선생께서 돌아가시자 그 뒤로 나 또한 바빠서 많은 시를 짓지 못했다. 기사년(1869) 가을에 와서 회인체 시를 모방하여 명공(名公), 거숙(鑑宿)으로부터 먼 지방에 있는 선비와 벗이 이르기까지 한 절씩 송모하는 뜻을 부쳤으니 모두 82편이었다. 향아리 뚜껑이나 덮는 데 쓰고자 하였으나 동인들이 계속 인쇄하기를 청하여 찍어내기로 하였다. 그들의 뜻이 자못 감동스러웠다. 선주 김석준이 쓰다.¹³⁾

이상적의 사후 김석준은 스승의 죽음과 여러 가지 근심스러운 일로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⁴⁾ 그는 시를 짓는 데 한동안 손을 놓았다가 4년 후인 기사년(1869) 가을에 와서 자신이 교제해왔던 인물에 대한 그리움을 시로 읊었다. 김석준의 벗 최성학은 회인시록에 부친 서문에서 “바야흐로 가을비 소슬히 내리며, 기러기 날며 울어대면, 문을 닫고 홀로 거처하면서 때때로 사람들을 그리워하였으니 더욱 마음에 맺힘(瀏然)을 금할 수가 없어 감개함이 이어진다”¹⁵⁾고 했다. 시를 지을 당시 김석준은 39세로, 스승의 죽음이라는 계기와 가을이라는 계절적 분위기에 따라 일종의 우울증을 앓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를 지었던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지난 기사년에 회인절구 82수를 간행했다. 대체로 국내의 사우(師友)들을 그리워하며 지은 것이다. 계묘년 가을에 병을 앓고 무료하던 차에 35년의 지난 시간 동안의 일들은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되어버리듯 변했고, 죽거나 고향으로 돌아가 버린 자들이 하나들이 아니었다. 또 지난번 회인시를 지을 때 빠뜨린 이와 새로 사귄 이들이 있어 오연시로 이어 지으니 모두 백여 수다. 오군영(五君詠)의 시체를 모방하여 노년의

있다. 이러한 정황 등을 고려해보았을 때, 『홍약루속회인시록』의 하권에는 해외 인물 중에서 일본 측 인물이 실려 있었고 그중 일부가 조선을 병탄하는 데 일정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작자 스스로 없애거나 타인에 의해 제거된 것이 아닐까 짐작해본다. 참고로 『홍약루속회인시록』의 등장인물 중에서 민족문제연구소 편, 『친일인명사전』(민족문제연구소, 2009)에 등재된 인물은 다음과 같다. 이희영(李喜永, ?-1939), 고영희(高永喜, 1849-1916), 이응구(李應九, 1880-?), 여규형(呂圭亨, 1848-1921), 이기(李琦, 1855-?), 정만조(鄭萬朝, 1858-1936), 이학규(李鶴圭, 1852-?), 현은(玄隱, 1860-1934).

- 13)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紅藥樓懷人詩錄自序〉. “余甲子以前詩, 皆經藕船先生點定. 乙丑秋, 先生遽遊道山, 其後余亦倥傯不能多作. 己巳秋, 仿懷人體, 自名公鑑宿, 至於日下師友, 各係一截, 以寓誦慕之意, 凡八十二篇. 將欲覆瓿, 同人亟請付梓, 其誼殊可感也. 善州金爽準識.”
- 14) 김석준, 『研白堂初集』, 〈研白堂集序〉. “甲子以後事, 多虞憂倥傯. 己巳秋, 遂得懷人詩八十二篇, 冬因病間居, 雖作之, 皆屑屑不能記.”
- 15) 최성학, 『紅藥樓懷人詩錄』, 〈紅藥樓懷人詩錄序〉. “方秋雨飄蕭, 鴻鴈流嘶, 扁戶索居, 撫時懷人, 尤不禁瀏然于心, 而感慨繼之.”

쓸쓸한 마음을 부친다. 이! 환갑을 이미 넘겨 쇠모함과 질병이 점차 진행되어 문자의 인연을 다시 이룰 수가 없으니 이에 마음속으로 느끼는 바가 있어 그 대략을 기록한다.¹⁶⁾

그는 『회인시록』을 지은 지 35년 만인 계묘년(1903) 가을 병을 앓던 중에 다시 회인시를 짓는다. 이전에 빠뜨렸던 인물과 새로 사귄 인물을 추가했고, 돌아보니 교류했던 사람들은 죽거나 고향으로 돌아가 만날 수 없는 자들이 매우 많았다고 했다. 당시 그는 73세로 문자로 인연을 맺었던 인물들이 대부분 이 세상 사람이 아니어서 다시 만날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했다.

첫 번째 회인시는 스승의 죽음을 계기로 그때까지 교류했던 인물을 망라한 것이며, 두 번째 회인시는 자신의 삶을 정리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지은 것이다. 이처럼 그의 회인시는 인생의 마디에서 자신을 둘러싼 인물의 삶을 정리하고자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는 자신보다 세상을 먼저 떠난 인물들을 그리워하며 지은 조면호의 「감시절구(感詩絶句)」· 「회인절구(懷人絶句)」와 창작 동기가 흡사하며, 회인시의 장편화 경향과 주석 활용 등의 성향도 유사하다. 특히 김석준의 회인시는 별도로 간행되었다는 점을 통해 작품의 가치가 인정되었으며 주변 문인들에게 완상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⁷⁾

III. 김석준 회인시의 인물 형상화 방식

소당의 학문은 강과 같고, 바위와 같다. 넉넉하게 시문을 지었다는 것은 이미 미루어 알 수 있는데, 평소에 익히고 접한 것은 척독(尺讀)이고, 기이한 문건(聞見)을 적은 것은 필기(筆記)이다. 척독은 위로는 소식(蘇軾, 1037-1101)과 황정경(黃庭堅,

16) 김석준, 『紅藥樓續懷人詩錄』, 〈紅藥樓續懷人詩錄自序〉. “曩在己巳, 刊懷人絶句八十二首, 盖企慕海内師友而作也. 泊癸卯秋, 吟病無聊, 憶卅五年之頃時事滄桑, 游岱而歸里者不一. 又有曩時遺漏與新交, 續作五言, 凡一百餘首. 仿五君詠體, 以寓老年纏綿之意. 嗟乎! 甲齡已過, 衰病侵尋, 文字之緣, 未能再續, 迺有感于中以誌其槩云爾.”

17) 이전 시기에 회인시가 별도로 유통된 단서는 장서각 소장인 유일본 『惠修妙品』에서도 찾을 수 있다. 이는 회고시의 전범으로 알려진 유득공의 〈二十一都懷古詩〉와 박제가의 〈懷人詩仿蔣心餘〉가 합쳐진 것으로 총 10장의 필사본이다. 유득공의 자는 惠甫이며, 박제가의 자는 修其인데, ‘惠修’는 두 사람의 자에서 첫 글자를 딴 것이다. 박제가의 〈懷人詩仿蔣心餘〉는 원래 50수인데 『惠修妙品』에는 46수만 실려 있으며, 약간의 글자 출입이 있다. 이러한 책자가 유통되었다는 것은 당시 유득공의 懷古詩와 더불어 박제가의 懷人詩가 널리 완상되고 유통되었던 상황의 일단으로 보인다. 또한 懷古詩와 懷人詩가 상당한 연관성이 있음을 말해준다.

1045-1105)을 엿보고 아래로는 원매(袁枚, 1716-1797)에 비견한다. 전거를 고찰함이 깊고 해학을 잘하였으며, 상세하면서도 자연스럽고, 유창하면서도 고우며 청초하면서 특이하여 읽은 사람들이 포복절도하고 땅을 치면서도 정신없이 읽느라 피곤을 잊게 만든다. 필기는 페르시아(波斯)의 도시를 구경하는 것 같아서 기이하고 즐길 만한 볼거리들이 눈에 가득하여 정신이 현란했다. 왕사정의 『향조필기(香祖筆記)』와 비교해 보아도 우열을 정하기 어렵다.¹⁸⁾

위의 글은 다산의 외손 윤정기(尹廷琦)가 김석준의 글을 논평한 것이다. 윗세대의 작가로는 소식과 황정견을 본받았고, 그 아래 세대는 원매와 비견된다고 했다.¹⁹⁾ 왕사정은 사공도의 『이십사시품』과 엄우의 『창랑시화』의 시학을 발전시켜 이른바 신운론(神韻論)을 주창했다고 평가받는 시인이다.²⁰⁾

윤정기는 김석준의 글과 왕사정의 글이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로 백중세라고 평했다. 특히 전거를 깊이 고찰하였고 해학적인 요소를 삽입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또 다른 특징으로, 어느 한쪽의 표현 방식에 매몰되지 않고 적당한 문학적 긴장감을 유지하여 읽는 사람들이 포복절도할 정도로 웃게 하고, 읽을 때 피곤을 잊도록 만들어준다고도 했다. 또한 페르시아의 화려한 도시를 구경하는 듯, 정신이 없을 정도로 많은 볼거리들이 펼쳐진다고 했다. 원래 위의 글은 김석준의 척독과 필기를 언급한 것이지만, 다른 장르의 작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박경재가 쓴 『속회인시록』의 발문에, 고기 한 조각의 맛으로 술 전체에 들어 있는 음식의 맛을 알 수 있듯이 회인시는 그의 작품세계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전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열쇠라고 했다. 또한 자법(字法)이 거친 듯하면서도 부드럽고, 음운(音韻)이 자연스럽게 잘 통하는 특징과 충담(沖澹)·소산(蕭散)의 정취를 품고 있다고 했다.²¹⁾

18) 尹廷琦, 『舫山先生遺稿』, 〈小棠尺牘筆記序〉. “小棠之學, 江也, 嶽也. 其瞻爲詩文, 是已推之, 而平居訓接者, 尺牘也. 奇聞異觀者, 筆記也. 尺牘則上窺蘇·黃, 下肩隨園, 有深於考據者, 善爲戲謔者, 詳密而圓轉者, 紆餘而綺妍者, 清楚峭奇, 令人絕倒抵掌, 耽愛忘疲. 筆記則覽之如入波斯市, 瑰觀瑋翫, 溢眼眩神. 較諸香祖記, 未可定其伯仲.” 대동문화연구원, 『다산학단문헌집성』 3(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370쪽.

19) 원매는 5언 6구의 회인시를 처음으로 지은 장사전, 조익(趙翼, 1727-1814)과 함께 ‘건륭 삼대가’로 지칭된다.

20) 박종훈, 「조선 후기 왕사정 신운 시론 수용 양상: 한시 사가를 중심으로」, 『태동고전연구』 24집(2008).

21) 김석준, 『紅葉樓續懷人詩錄』. “…… 其詩乃懷人詩二百四十篇也. 既非先生之全集, 則可謂吉光片羽, 全鼎鬻一, 而隨其所詠. 而究其造詣, 則字法靈鬆圓活, 音韻鏗鏘諧律. 自

회인시는 작자와 대상 인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그러므로 회인시는 간단한 서술구조를 지니는 경우가 많다. 대체로 상대의 삶·인품·업적·능력 등에 대한 일방적인 상찬(賞讚), 상대에 대한 개인적인 인식과 평가,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화나 인연에 대한 부연 등의 내용으로 비교적 간단한 방식을 지닌다. 그러나 그 속에 숨은 의미를 파악하여 제대로 이해하기는 쉽지 않다. 조희룡이 유배당한 시점에 지은 「회인절구」가 여타 회인시와 다른 특징을 지니는 것처럼 시를 짓는 시점에 작자의 상황이나 처지를 파악해야 한다. 또한 상대방의 처지, 상대의 삶과 주요 사건,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 시 속에 인용된 다른 사람의 시, 서적·글씨·그림 등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한다.

1. 다채로운 전거 제시를 통한 개성 표출

藝覃心證瓣香緣 藝臺, 覃溪와 瓣香의 인연을 마음으로 증명하니,
 원주: 공은 일찍이 부친인 상서 西堂(金魯敬)을 따라 연경에 들어가 阮藝臺와 翁覃溪를
 배알했다. (公嘗陪其大人西堂尙書入燕, 拜阮芸臺翁覃溪.)
 海內聲名萬口傳 은 나라 사람들에게 이름 전했네.
 經籍之山金石府 經籍의 산에 金石文의 마을,
 蒐羅無復一千年 모아서 벌임은 천 년 사이엔 다시없으리.²²⁾

위의 시는 크게 두 가지 주제에 착안했는데, 하나는 김정희가 청나라의 학자인 옹방강(翁方綱, 1733-1818), 완원(阮元, 1764-1849)과 사귀고 인정을 받았다는 점과 다른 하나는 경학과 금석문에 깊은 조예가 있다는 점이다. 원주를 통해 1809년 24세의 청년이던 김정희가 부친 김노경(金魯敬, 1766-1837)을 따라 연경에 가서 옹방강과 완원을 만난 일을 밝혔다. 판향(瓣香)은 스승과 제자의 예를 말하는 것으로, 소동파를 추송하는 옹방강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제자들과의 유대감을 표시한 것이다.²³⁾ 3구에서는 산처럼 쌓인 경적과 금석문을 수집하여 연구하는 그의 모습을, 4구에서는 그의 위대한 업적이 천년 내에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찬사를

少至老, 劇心鉅目者不在乎? 鑿刻藻績而專務乎? 沖澹蕭散, 不欲作陶謝以下之趣, 則其詩反有勝於其書, 豈非古人難兼之美, 獨得而有之歟? 後之讀此者, 謂余不信, 請質于小滄與蘭石也. ……”

22)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4수, 〈金秋史 侍郎 正喜〉.

23) 이철희, 「19세기 한중 문학 교류와 오송량」, 『대동문화연구』 73집(2011), 117쪽.

보낸다.

회인시에서 상대를 인정하고 높은 인격을 나타내기 위해 과거나 현재의 뛰어난 인물에 빗대는 것은 흔히 쓰이는 수법이다. 김석준 역시 인물품평의 기준을 중국이나 조선의 명사로 설정했다. 이유원의 회인시에서도 김정희가 중국에서 인정받았던 사실과 자신에게 가르침을 주던 일을 말했다.²⁴⁾ 특히 조면호는 김정희가 부친을 따라갔던 여행에서 만난 완원과 옹방강을 언급하고 추사의 업적을 칭송하고 있는데²⁵⁾, 이는 김석준이 착안한 내용과 기술 방식을 그대로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김석준이 1869년에 회인시를 짓고, 3년 후인 1872년에 조면호가 「감시절구」를 지었으니 두 사람 사이의 영향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²⁶⁾ 그 외에도 김석준은 박유성(朴迪性)에 대해서는 건안칠자(建安七子)의 유정(劉楨, ?-?)과 남북조시대의 문인 심약(沈約, 441-513)에 빗대기도 했다.²⁷⁾ 또한 김정희의 동생인 김명희(金命喜, 1788-1857)와²⁸⁾ 김상희(金相喜, 1794-1861)²⁹⁾의 경우에는 모두 추사를 기준으로 인물을 품평하였다.

文氣成五色	문풍은 다섯 가지 색깔을 이뤘고,
遺韻採千載	남은 시구는 천 년 전의 것을 캐 왔네.
燕南紙價貴	낙양의 종이 값이 비싸졌으니,
才豈止專對	어찌 재주가 專對함에 그치겠는가.
歸臥摩尼山	마니산으로 돌아가 은거하여도,
朗吟猶不廢	음조리기 오히려 그만두지 않았다네. ³⁰⁾

24) 이유원, 『嘉梧藥略』, 「懷長老做古人體」, 〈金秋史 正喜〉. “北院頭陀老, 西清古鑑圖. 中州尚誦名, 外物已捨軀. 隸苑發秘見, 跣冗愧我愚.”

25) 조면호, 『옥수집』 권16, 「감시절구」, 제21수. “力劈東蒙一見聞, 金秋史出御蘭芬. 阮覃石墨分身在, 千古精魂萬里雲.”

26) 조면호는 1872년 작고한 이를 대상으로 한 「감시절구」 56수를 짓고, 뒤이어 만날 수 없는 이를 대상으로 「懷人絕句」 26수를 짓는다. 조면호와 김석준은 서로의 회인시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었던 듯하나, 회인시의 등장인물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간접적 교류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7)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23수, 〈朴清珊 迪性〉. “病如郡下劉公幹, 瘦似江南沈隱侯. 閉戶眞工猶忘老, 草堂風雨讀春秋.”

28)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12수, 〈金山泉大令 命喜〉. “作詩如史不停筆, 長劒倚天星亂飛. 學問繇來知道力, 溫仁姿性亦云稀.”

29)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13수, 〈金琴眉農曹 相喜〉. “才如伯仲推高手, 詩出門庭盡妙辭. 白首郎潛緣底事, 文章磨蝕數應奇.”

30) 김석준, 『紅藥樓續懷人詩錄』, 제42수, 〈李甯齋 建昌 承宣〉.

이건창(1852-1898)은 김석준이 『속회인시』를 짓기 5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위 시의 1·2구에서는 그가 다양한 문체를 구사하고 옛 시를 본받아 문장과 시가 뛰어남을 말했다. 3구에서는 진(晉)의 좌사(左思)가 〈삼도부(三都賦)〉를 짓자, 낙양 사람들이 다투어 그것을 베끼느라 종이 값이 급등했다는 고사를 가져왔다.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 사신으로 쓰기에도 아까운 인물이라 여긴 것이다. 이건창은 김택영(1850-1927)이 여한구대가의 한 사람으로 꼽을 정도로 문장에 뛰어난 인물로, 김석준도 이 사실을 인정할 것이다. 5구와 6구에서는 갑오경장 이후로 벼슬을 사양하다가 고향인 강화도로 내려가 은거한 사실을 말하고 있다. 그는 고향으로 온 지 2년 후에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다.³¹⁾

김석준은 이건창의 높은 재주를 제대로 펼 수 없는 세상에 대한 아쉬움을 시 속에 직접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은거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만으로도 시대의 문체를 충분히 느낄 수 있다. 위의 시에서 〈삼도부〉를 끌어온 것처럼 그의 회인시에서는 중국의 고사를 활용해 인물을 품평한 경우가 많다. 송백옥(宋伯玉)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안빈(安貧)·낙도(樂道)와 같은 구절을 끌어와 상대의 삶과 지향점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³²⁾ 남병철의 회인시에서 인물을 품평할 때 비유한 명인과 고사가 청조 학예에서 습득한 높은 식견으로 세심하게 선별된 경우라고 한다면³³⁾, 김석준은 비교적 널리 알려진 고사와 인물을 활용하였고 당대에 사표로 삼을 만한 인물을 품평의 기준으로 삼았다.

八十成進士	여든에야 進士가 되셨으니,
風骨望如仙	그 모습 바라보면 신선 같았네.
酬唱交覃雪	翁方綱, 吳嵩梁과 함께 시를 수창하여,
	원주: 覃은 覃溪이고, 雪은 蘭雪이다. (覃溪, 蘭雪)
高名日下傳	높은 명성 중국까지 전했네.
著述等身富	키 높이만 한 많은 저술은,
泯滅無人鐫	사라져 전하는 이 없다네. ³⁴⁾

31) 이건창은 병인양요 때 조부 이시원(李是遠, 1790-1866)의 자결을 목도한 이후, 서양과 일본의 침략을 철저히 배격했다. 또한 가학인 양명학을 계승하고 주체적 개화를 주장했다.

32) 김석준, 『紅藥樓續懷人詩錄』, 제27수, 〈宋小黎 伯玉 侍讀〉. “會賦高軒過, 廿載情不疎. 安貧終南屋, 樂道古人如. 手撰東文選, 合註朱程書.”

33) 한영규, 앞의 논문(2008), 461쪽.

조수삼(1762-1849)은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핵심 인물로, 정이조(丁彝祚)·이단전(李奩佃)·조희룡·김낙서(金洛瑞)·장혼(張混)·박운묵(朴允默) 등의 여향시인과 교유했다. 조수삼은 김석준이 『회인시록』을 지을 때에도 죽은 지 이미 20년이나 지났고, 『속회인시록』에서 조수삼을 읊은 시점은 50년이 더 넘은 때였다. 『속회인시록』의 서문에서 김석준이 『회인시록』에 빠뜨린 인물을 추가했다고 한 것은 조수삼과 같은 경우를 가리킨다. 1구에서 여든에야 진사가 되었다는 말은, 조수삼이 신분적 제약으로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다가 83세(1844)의 나이가 되어서야 진사시에 합격한 일을 말하는 것이다. 조수삼은 김석준이 약관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고 나이차가 컸기 때문에 깊은 교유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시 14세였던 김석준이 이 경험을 함께했던 것은 분명해 보인다. 어린 김석준의 눈에 비친 조수삼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기에, ‘그 모습이 신선과 같다는 느낌이 들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신선의 이미지는 김석준의 스승인 이상적³⁵⁾이나 지체가 높은 권돈인³⁶⁾의 경우에도 상대방을 추송하기 위한 설정으로도 사용되었다.

1구와 2구에서 노년의 김석준은 자신의 어렸을 적 시선으로 돌아가 그와 함께했던 가장 강렬한 사건과 기억을 배치했다. 조수삼의 합격 소식을 듣고 당시 벼슬하던 양반 수십 명이 축하하러 오기도 했는데³⁷⁾, 그날 지은 시에서 자신의 진가는 뱃속에 있는 수백 짐의 시서(詩書)에 있으니 나이는 따질 것 없다는 자부심을 드러냈다.³⁸⁾ 그러나 시대의 질곡을 벗어나지 못한 중인 계층의 한이 엿보인다 하겠다. 조수삼은 1789년(28세)에 이상원(李相源)을 따라 중국에 간 이후로 여섯 차례에 걸쳐 연행을 했고, 오송량·유희해(劉喜海)·강연(江漣)·주문한(朱文翰) 등의 중국 문사와 교유했다. 3·4구는 옹방강, 오송량과 함께 시를 수창하여 이름을 떨친 일을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 발 닿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국내 각지를 여행하여 많은 시를 남겼다. 5구는 이를 말하는

34) 김석준, 『紅藥樓續懷人詩錄』, 제8수, 〈趙秋齋 秀三 司馬〉.

35)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20수, 〈李藕船 尙迪〉. “記否前身是謫仙, 百篇一斗續奇緣. 中朝名士問無鮮, 東國詩人李藕船.”

36)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1수, 〈權彝齋相國 敦仁〉. “勳業黃扉問幾年, 東山高臥望如仙. 生平出處關時重, 餘事文章世已傳.”

37) 유재건,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이향건문록』(글항아리, 2008), 478쪽 참조.

38) 조수삼, 『秋齋集』 권6, 〈司馬唱榜日口呼七步詩〉. “腹裡詩書幾百擔, 今年方得一襴衫. 傍人莫問年多少, 六十年前二十三.”

것이다. 6구에서 시인은 회인시를 짓고 있는 현재로 돌아와, 그가 지었던 많은 글은 어디론가 사라져 전하는 이가 없게 되었다고 했다.

시인이 직접 보고 기억하는 과거로 갔다가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추억의 과정을 담담히 보여주어 깊은 여운이 느껴지게 했다. 유학영(柳學永)에 대해서는 벽오사의 모임 장면에서 농담을 잘하여 사람들이 포복절도하는 순간을 포착하기도 했으며³⁹⁾, 박규수(朴珪壽)의 경우 자신이 상대방이 만난 순간의 장면과 그 주위의 모습을 인용했다.⁴⁰⁾ 곧 상대방과 공유했던 시간 중에서 가장 강렬한 기억을 제시하여 인물의 개성적 측면이 잘 드러나도록 했다.

茶翁曾授學	일찍이 茶翁께서 가르치셨고,
文源自醴泉	문장은 醴泉에 근원했다네.
研經陋巷裏	누추한 마을에서 경학을 연구하다,
搔首望青天	머리 긁으며 푸른 하늘 바라보곤 하네.
易說東寶錄	『易傳翼續』과 『東寶錄』의
瞻核後必傳	깊은 뜻은 후세에 반드시 전하리. ⁴¹⁾

윤정기는 정약용(1762-1836)의 외손자로 다산학단의 맥을 이은 인물로 평가된다. 시와 학문 모두 뛰어났는데, 그의 시는 청나라 학자 주당(周棠, 1806-1876)이 평가하기를 “백홍(白虹)의 기상이 있다”고 극찬했다. 방산(舫山)이라는 호도 주당이 지어준 것이다.⁴²⁾ 1·2구에서 윤정기가 정약용에게 배운 일을 말했고, 3·4구는 김석준이 보았던 윤정기의 모습을 그렸다. 누추한 마을에서 가난을 개의치 않고 경학 연구에 매진하는 모습, 그러는 와중에 머리를 긁으며 하늘을 바라보면서 생각에 잠기는 모습은 김석준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누추한 마을에서(陋巷裏)”라는 말은 『논어』 「옹야」에서 안연이 가난 속에서도 도를 즐기는 모습을 공자가 칭찬한 것에서 따왔다.⁴³⁾ 안연은 공자의

39)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45수, 〈柳愚溪 學永〉. “談笑風流一座傾, 靑霞奇氣自縱橫, 夏園常誦愚溪句, 愛爾文詞善紹聲.”

40) 김석준, 『紅藥樓續懷人詩錄』, 제1수, 〈朴獻齋 珪壽 相國〉. “山屋承誨夜, 霜月色滄茫. 文章與事業, 醉白也堪方. 沈雄一百韻, 中州姓名香.”

41) 김석준, 『紅藥樓續懷人詩錄』, 제44수, 〈尹舫山 廷琦 舉人〉.

42) 윤정기, 『방산선생유고』 권3, 〈行狀〉. “又移居三清洞, 以丹楓詩卷, 送于燕京, 受評於周少白, 少白評曰: ‘盛唐氣像, 應亦重見’ 贈號舫山, 兼以書贈跋文.”

43) 『논어』, 「雍也」. “賢哉回也! 一簞食, 一瓢飲, 在陋巷, 人不堪其憂, 回也不改其樂. 賢哉

수제자로, 곧 윤정기에게 안연의 이미지를 덧씌워 그가 다산학단의 맥을 이었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5·6구에서는 『역전의속(易傳翼續)』, 『동환록(東寬錄)』과 같이 그가 지은 저술에 대해 언급하며, 오랫동안 전해질 것이라고 했다. 시에서 언급한 책 외에도 윤정기는 『시경강의속집(詩經講義續集)』, 『물명고(物名考)』, 『방산유고(舫山遺稿)』 등을 저술했는데, 그의 특징을 위의 두 책에서 찾았던 것으로 보인다.

어떤 책과 작품을 저술했는가는 그 인물의 지향점을 보여주는 중요한 부분이다. 김석준은 상대방의 작품과 저술을 중심으로 시의 주제를 정해 서술하기도 했다. 윤제규(尹濟奎)는 <평양죽지사(平壤竹枝詞)>, 함진숭(咸鎭嵩)은 『예설(禮說)』과 『경설(經說)』, 장지완(張之琬)은 『비연상초(斐然箱草)』, 최성효는 『독산당집(讀山堂集)』, 송백옥(宋伯玉)이 직접 찬수한 『동문선(東文選)』과 제가의 주를 모은 『주정서(朱程書)』, 오세창(吳世昌)은 『해동금석록(海東金石錄)』, 박문규는 「집구시(集句詩)」를 썼다고 했다.⁴⁴⁾ 이처럼 저술한 책과 작품을 통해 상대방의 개성을 나타내고자 했으며, 이를 통해 조선 말 다양한 학술적 시도가 이뤄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⁴⁵⁾

2. 복합적 관계 확인을 통한 인연의 강조

倏然鶴髮賦軒時	초탈한 모습에 백발로 시 지으실 때,
恰是前身韓退之	혹사 전생에 韓愈가 아니셨는지.
多謝先生頂鍼語	선생께서 해주신 頂鍼의 고마운 말씀들,
至今鑄藕船詩	지금까지도 藕船의 시를 녹여내네네. ⁴⁶⁾

원주: 선생께서 나에게 시를 지어주셨는데, '평생 우선의 시를 녹여내네'라는 구가 있다.
(先生贈余詩, 有'平生鑄藕船詩'之句)

回也.”

44) 분량상 해당 시의 원문은 일일이 제시하지 않고 작품 번호와 제목만 제시해둔다. 15수 <尹弼堂 濟奎>, 17수 <咸鎭香 鎭嵩>, 32수 <張玉山 之琬>, 44수 <崔錦溪 性孝>, 續27수 <宋小黎 伯玉 侍讀>, 續49수 <朴天游 文達 參議>, 續69수 <吳日齋 世昌 主事>.

45) 황위주, 「일제강점기 전통지식인의 문집간행 양상과 그 특징」, 2012년 11월 16일 한국고전번역원 개원 5주년 기념 정기학술대회, 『일제강점기 전통지식인의 신문물체험과 그 대응』 발표문 참조. 갑오개혁 이후 간행한 문집이 조선시대 전 시기에 걸쳐 간행한 것을 능가한다고 할 만큼, 조선 말기 다양한 학술적 시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46)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14수, <丁西山 直長 學淵>.

정학연(丁學淵, 1783-1859)과 김석준이 교류할 수 있는 시기는 길지 못했다. 벽오사가 결성되는 1847년에 정학연은 이미 환갑을 훨씬 넘긴 나이였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1구에서 “초탈한 모습에 백발”이라고 한 것이다. 2구에서는 그의 시를 두고 감탄하며 전생애 한유가 아니었느냐며 치켜세운다. 3구에서는 자신에게 시를 지도해주는 장면을 회상했다. 4구에서는 자신에게 지어줬던 시를 전고로 활용했다. 정학연은 김석준에게 자상하게 시를 지도해주고, 시를 지어주기도 했던 사제의 인연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구의 내용이 주목된다. “평생 우선의 시를 녹여내네”라고 한 것은 정학연도 이상적과 김석준의 사제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면서, 정학연 스스로도 이상적과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음을 말하는 시구이다. 『은송당속집』 권6에 정학연이 이상적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시 2수를 부친 것에 대해 이상적이 답장을 하고 차운했던 시가 실려 있다. 정학연이 보낸 시는 확인할 수 없지만 늙고 병든 와중에 동갑인 권돈인이 세상을 떠나자 더욱 깊은 수심에 잠긴 마음을 표현한 내용으로 짐작된다. 이상적은 벗의 사망으로 슬픔에 빠진 정학연의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했다.⁴⁷⁾ 하지만 정학연도 얼마 지나지 않아 같은 해에 세상을 등졌고 이상적은 그에 대한 만시를 짓는다.⁴⁸⁾

김석준이 정학연에 대한 회인시를 지은 것은 그가 죽은 지 11년 만이며, 이상적 역시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된 시점이었다. 김석준은 정학연을 노래하면서 그와 깊은 교류관계에 있던 자신의 스승 이상적을 간접적으로 삼입하여 세 사람의 관계를 짧은 시구에 복합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시에서 1·2구에서는 상대방을 자신이 봤던 시점의 모습대로 읊고, 3구에서는 서로에게 있던 일을 말했다.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직접적인 관계를 읊고 또 다른 사람의 시를 매개로 3인(人) 혹은 그 이상의 연결고리를 설정했다.

47) 이상적, 『恩誦堂集』, 〈西山先生自廣陵貽書, 并付二律, 寄託殊深, 次韻以謝〉. “銷除湖海舊時豪, 閉戶深深一枕高, 中夜夢迴燕市月, 西風神湧廣陵濤, 蛾眉已老休相妬, 魴尾雖頑敢告勞, 多少煩襟聊自遣, 桐陰涼處弄吟毫.” “弊廬誰訪病相如, 花外頻煩枉小車, 腳健無須靈壽杖, 眼明猶作細楷書, 贈鞭關塞輸心日, (客冬見寄贖章五首於龍灣) 聽笛鄰家感舊初, (先生與彝齋權相國同庚而相國近者下世) 藿食從來謀底事, 百年惟恐酒杯虛.”

48) 이상적, 『恩誦堂集』 권6, 〈奉挽丁西山直長〉. “壽木風摧百尺條, 江流嗚咽雨蕭蕭. 河魚一疾成千古, 遼鶴孤魂返九霄. 下士自稱詩弟子, 在官常伴老漁樵. 文能華國醫醫國, 斯道爭禁兩寂寥.”

남병철은 정학연을 읊은 회인시에서 그가 힘든 삶을 살았다고 했다. 아버지 정약용이 18년간 유배생활을 하고, 작은 아버지 정약전의 전 가족이 사형당한 일 등을 말하는 것이다.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막히자 만년에는 의원으로서 가계를 이끌어가는 모습을 그렸다.⁴⁹⁾ 남병철의 회인시는 시인이 시적 대상의 삶을 일방향의 시선으로 고정시켜 노래하는 구도로 이루어졌다. 그에 반해 김석준의 경우에는 시인 자신과 대상 그리고 제3의 연결고리를 찾아 이들의 관계망을 드러냄으로써 깊은 인연과 그리움의 감정을 짧은 편폭에 효과적으로 나타냈다.

有情天下王長史 천하에 뜻을 품으면 王長史가 될 것이고,
 落魄江南杜牧之 강남에 태어나면 杜牧이 되리라.
 원주: 상서 남병철이 일찍이 하원에게 준 시구다. (南圭齋尙書贈夏園句)
 此外便無知己語 이보다 나은 知己의 말이 없으니,
 圭齋先我一篇詩 圭齋께서 나보다 먼저 한 편의 시를 지었네.⁵⁰⁾

정지윤은 여항의 괴짜 시인으로, 왜어역관 집안에서 태어났으나 생업을 돌보지 않고 떠돌아다녔다. 추사도 그의 재주를 인정하여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면서 공부를 시켰으나 끝내 그를 잡아둘 수 없었다.⁵¹⁾ 남병철은 정지윤의 유력한 후원자로서 내왕이 잦았다. 김석준은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남병철의 시구를 인용한 것이다. 시의 1·2구는 원래 남병철이 정지윤에게 준 시로, 〈증정수동지윤(贈鄭壽銅芝潤)〉의 두 번째 수의 3·4구다.

席地幕天無所知 땅을 자리 삼고 하늘을 천막 삼아 알 바 없는 듯,
 中山一醉太支離 中山은 한번 마시면 지겹도록 취하는구나.
 원주: 수동은 정월부터 4월까지 하루도 술에서 깬 적이 없었다. (壽銅自正月至四月, 無一日醒.)
 有情天下王長史 천하에 뜻을 품으면 왕장사가 될 것이고,
 落魄江南杜牧之 강남에 태어나면 杜牧이 되리라.
 爾汝定交皆杵臼 그대와 나는 바로 절구와 절구공이의 사귀이니,
 文章餘事卽胡葵 문장은 나머지 일로 향채(香菜: 胡葵)라네.

49) 南秉哲, 『圭齋遺藁』, 제13수, 〈丁西山學淵〉. “艱難險阻備嘗之, 一字何曾得救飢. 始覺讀書無所益, 希文餘願作良醫.”

50)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30수, 〈鄭夏園 芝潤〉.

51) 유재건,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옮김, 앞의 책, 536쪽 참조.

才高難入時人眼 높은 재주는 지금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으리니,
 動輒得謗名亦隨 꿈쩍만 하면 욕을 먹지만 명성 또한 따라오네.⁵²⁾

1구는 정지윤이 집에 머물지 않고 세상을 돌아다니며 미친 듯한 행동을 일삼는 것을 가리키고, 2구는 정월부터 4월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술을 마셔 취하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과음했다고 하였다. 그런 행동에도 불구하고 3·4구에서는 그가 한번 천하를 얻고자 하면 왕장사가 될 것이고, 강남에 태어났다면 유명한 시인이 될 정도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 부분은 남병철의 회인시에도 나온다.⁵³⁾ 그러나 그가 조선에 태어나 능력과 뜻을 펴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5·6구에서 남병철은 정지윤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말하며 높은 재주는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과음으로 인해 돈을 갓 넘기고 세상을 떠난다.

김석준은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정지윤과 교류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1848년 정지윤과 함께 북한산의 승가사에서 요양할 때 김석준은 18세, 정지윤은 41세였다.⁵⁴⁾ 그러나 자신보다 제3자가 상대방을 더 잘 알고 있다고 여겨, 자신의 말을 줄이고 해당 인물에 대한 시문을 삽입함으로써 상대방의 관계를 부각시켰다. 이러한 방식을 통해 정지윤과 남병철의 깊은 관계를 드러냄으로써 두 사람의 우정이 어떠한지 궁금하게 만든다. 또한 현실의 문제를 술로 풀 수밖에 없는 정지윤의 마음에 공명하고 있다.

남병길(南秉吉, 1820-1869)에 대해서는 김석준이 지은 <화국죽지사(和國竹枝詞)>에 대한 평을 밝혔고⁵⁵⁾, 좋다고 생각하는 상대방의 시를 삽입기도 했는데⁵⁶⁾, 이처럼 다른 사람의 시문에서 어떤 부분을 활용했는지는

52) 南秉哲, 『圭齋遺藁』, <贈鄭壽銅芝潤>.

53) 南秉哲, 『圭齋遺藁』, 제24수, <鄭夏園芝潤>. “雲崧詩裏得靈犀, 一杵金剛破六迷. 比況胡爲李松穆, 子蒼猶耻入江西.”

54)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5수, <洪芍玉尙書 鐘應>. “風儀文彩兩相宜, 老圃秋香嗟已遲. 二十年前蕭寺會, 碑峰石窟訂佳期. (戊申秋, 余與鄭夏園, 調病于漢北僧伽寺, 時尙書偕南圭齋尙書作山遊, 余始得證交. 有‘北狩碑峯深篆跡, 西來石窟冷苔衣.’之句, 尙書亟獎之.)”

55)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8수, <南留齋尙書 秉吉>. “博學機雲世共推, 星經校衍復工詩. 平生愧比韋郎句, 枉把詞編付棗梨. (拙著和國竹枝詞, 尙書付梓題辭, 有‘字字清新句句奇, 韋郎風格五言詩’之句.)”

56)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11수, <趙蘭西學士 雲周>. “龍文百斛筆能扛, 天與才華世少雙. 艷說西游詩句好, 戍樓羌笛響寒江. (學士庚申使燕, 到龍灣得, 戍樓臨絕塞, 羌笛

주의 깊게 지켜보아야 할 부분이다. 이처럼 김석준의 회인시는 시를 소재로 상대방을 읊은 경우가 많아 논시시(論詩詩)의 특성을 가지지만, 이를 통해 시를 논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진면목을 드러내고 깊은 인연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韋詩黃墨雲林畫 韋蘇州의 시 黃山谷의 글씨 倪雲林的 그림,
 三絕才名噪一時 三絶이란 명성이 한 시대에 가득하네.
 鍾玉藍田收未了 푸른 밭에 심은 옥을 다 거두지 못했으니,
 世人那識個中奇 그 속에 멋진 보배를 세인들이 어찌 알리오.⁵⁷⁾
 원주: 古藍의 자는 奇玉이다. (古藍字奇玉)

전기(田琦, 1825-1854)는 김정희파의 서화가 중에서도 사의적(寫意的)인 문인화의 경지를 가장 잘 이해하고 구사했던 인물로, 안연이라고까지 일컬어지며 촉망받았으나 30세로 병사(病死)했다. 1847년 유취진(柳耒鎭)을 중심으로 전기, 조희룡 등이 참가하여 벽오사를 결성해 함께 활동해왔다. 오경석(吳慶錫)과 함께 이상적의 문하에 출입하면서 금정회를 알게 되었으며, 1839년 유재소(劉在韶)·유숙(劉淑)·김수철(金秀哲)·허련(許鍊)·조중묵(趙重默), 이한철(李漢喆) 등과 함께 화평(畫評)을 통해 그림 지도를 받기도 했는데, 위에서 언급한 인물들은 대부분 김석준의 회인시에 등장하고 있다. 유재소와는 금란지교(金蘭之交)로 일컬어질 만큼 가깝게 지내, 김석준도 “지기였던 혜산과 고람이 세상을 떠났으니, 어느 곳에서 진을 물어야 하는지”⁵⁸⁾라고 하며 두 사람 사이의 인연을 말하고 있다.

1구와 2구에서는 고사를 이용해 상대방을 상찬하는 방식을 활용했다. 당대(唐代) 위응물(韋應物, 737-792)의 시, 송대(宋代) 황정견(黃庭堅, 1045-1105)의 글씨, 원대(元代) 예찬(倪瓚, 1301-1374)의 그림을 언급하였고, 이 세 분야에 모두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는 것이다. 3구와 4구에서는 그가 요절하여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 열매를 맺지 못했음을 말했다. 3구의 ‘푸른 밭’은 전기를 가리키는 것으로, 호의 ‘남(藍)’자와

響寒江.’之句.)”

57)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41수, 〈田古藍 琦〉. 전기와 조희룡의 회인시의 번역과 배치에 대해서는 한영규, 앞의 책(2012), 259쪽을 참고했음을 밝힌다.

58) 김석준, 『紅藥樓續懷人詩錄』, 제65수, 〈劉衡堂 在韶 牧官〉. “結契草堂月, 星移幾十春. 畫仿石田法, 沈著老更新. 知己惠藍逝, 何處問要津.”

성인 ‘전(田)’을 합친 것이다. 시인은 전기가 살아 있었다면 열매 맺었을 성과들, 곧 ‘푸른 밭에 심은 옥’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고 했다. 그만큼 그에 대해 깊이 알고 있음을 자부하는 것이다. 위의 시는 얼핏 보면 시적 대상에 대한 형식적인 상찬 일색으로 특별한 맛이 느껴지지 않는 것 같다. 전기에 대해서는 조희룡도 회인시를 지었다.

英妙之年俊逸身
胸中五岳已嶙峋
煙雲供養今何似
願作藍田畫裏人

영묘한 나이에 뛰어나고 훌륭한 사람,
가슴속에 五岳이 높이 솟아 있다네.
煙雲供養이 지금 어떠한지?
나는 그대 藍田의 그림 속 사람이 되고 싶다오.⁵⁹⁾

조희룡은 1851년(철종 2) 8월, 진종(眞宗)의 조천(祧遷)에 반대하는 권돈인과 그에 연루된 김정희의 복심(腹心)으로 지목되어 입자도로 유배된다. 그는 3년간 유배생활을 하였고 시사에서 어울리던 인물들을 그리워 하며 〈회인절구〉 22수를 지었다. 1구와 2구에서는 환갑을 넘긴 노인이 이립(而立)의 나이도 되지 않은 전기를 기상과 재주가 산처럼 높다고 했다.⁶⁰⁾ 3구와 4구에서는 전기에게 그림이 잘 되어가고 있는지 안부를 묻고 그가 그린 그림 속의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그의 시에도 전기를 ‘남전(藍田)’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다만 ‘남전’은 ‘푸른 밭’의 의미가 아니라, 전기를 직접 지칭하는 것이다.

전기의 호는 ‘고람(古藍)’인데, 이는 문인화의 개조인 왕유(王維, 699-759)의 유거지인 남전에서 따온 것이다. 이는 전기를 비롯한 조희룡, 허련과 같은 인물들이 남중문인화의 세계를 지향했기 때문이다.⁶¹⁾ 이곳은 중국 섬서성(陝西省) 남전현(藍田縣)의 동남쪽에 있는데 좋은 옥이 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김석준은 짧은 편폭의 시에다 한 인물의 특징을 그려 넣기 위해 조희룡의 회인시에서 전기를 가리키는 시구인 ‘남전’을 활용하고, 그 의미가 ‘푸른 밭’이라는 것에 착안하여 3·4구의 구도를

59) 조희룡, 「懷人截句」, 〈古藍〉.

60) 김석준은 벽오사가 결성되고 나서 비교적 후기에 참여하게 되는데, 전기가 〈매화초옥도〉를 그린 시점은 25세인 1849년이다. 그리고 2년 후인 1851년에 조희룡이 유배되고 3년 후인 1853년에 해배된다. 즉, 그 시기에는 정국의 혼란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시사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리라 짐작할 수 있다. 전기는 조희룡이 해배된 이듬해인 1854년에 사망한다.

61) 김순애, 「김정희파의 회화관 연구」, 제3회 동원학술상 수상논문(2001), 59쪽.

짚었다. 전기에 대한 시는 전고의 배치와 선택한 시어의 중첩된 의미, 다른 사람의 시와 인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었다.

3. 자호(字號)의 안배를 통한 해학적 구도 설정

김석준은 시만으로 의미를 이해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석을 달아 작품의 이해를 도왔다. 보통 두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화나 삽입된 시가 누구의 것인지 밝히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주석은 시를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서 따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⁶²⁾ 앞 장에서 다뤘던 전기의 시에는 “고람의 자는 기옥이다(古藍字奇玉)”라는 주석이 달려 있다. 그러나 자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이런 간단한 주석이 시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니 약간 의아한 생각이 든다. 시를 다시 살펴보면 ‘기(奇)’ 자는 4구 “世人那識個中奇”에 들어 있고, ‘옥(玉)’ 자는 3구 “鍾玉藍田收未了”에 들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상대의 자(字)에 들어가는 글자를 이용해 시어를 구성한 것이다. 원래 전기의자인 ‘기옥(奇玉)’ 역시 이름인 ‘기(琦)’를 파자해 지은 것인데, 김석준은 자에 들어가는 글자들을 시의 내용과 같이 시 속에 심어놓듯이 배치하여 독자에게 또 다른 재미를 준다.

남전에 심어놓은 옥을 세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찾겠느냐고 한 것은 김석준만이 전기의 뛰어남을 알고 있다는 의미도 되지만, 시의 독자에게 ‘당신이 이러한 글자(의미를) 찾아낼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상대방의 자나 호를 배치하여 해학적인 풀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의 전체적인 구도와 의미를 벗어나지 않도록 짜임새 있게 구성했다. 전기의 경우, 원주가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이 숨어 있는지 알아차리기 쉽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김석준은 전기의 문예세계 전반을 관통하는 관건으로 ‘기(奇)’의 미학을 들었다.⁶³⁾ 이는 김정희에서 시작하여 조희룡을 거쳐 김석준에게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라는 가치는 김석준의 회인시에 매우 빈번히 등장하고 있으며 상당히 긍정적인

62) 김용태, 앞의 논문, 118쪽. 조면호의 회인시는 19세기 서울 북촌의 시사 활동 자료집이라는 성격을 지니는데, 매우 자세한 주석을 통해 깊은 인연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김석준의 회인시는 주석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달았다.

63) 한영규, 앞의 논문(2012), 113쪽 참조.

의미를 지닌다.⁶⁴⁾

호(號)는 자기 스스로 짓는 자호(自號)가 있고, 타인이 그 사람의 특징을 살피 지어주기도 한다. 보통 그 사람과 인연 있는 지명이나 이루고자 하는 뜻, 처한 환경, 애호하는 대상으로 호를 삼기 때문에 그만큼 인물의 특징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다. 김석준은 호에 들어가는 글자와 그 의미를 시 속에 삽입하는 장난스러운 방식을 통해 상대방의 특징과 성격을 효과적으로 묘사해내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은 방식은 대체로 벗이나 나이가 비슷한 또래의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① 玄雲草 槩: 雲山生朱草, 服之可延年.⁶⁵⁾

② 崔研農 性學: 研經鎔史作書農, 欲學眞詩下妙工.⁶⁶⁾

③ 朴蘿山 性浩: 蘿衣山屋枕書眠, 薄宦蹉跎祿未捐.⁶⁷⁾

①의 예는 운초(雲草)라는 호의 글자를 각각 1구의 앞쪽과 뒤쪽에 배치하여 '구름 낀 산에 나는 붉은 풀, 먹으면 수명을 늘릴 수 있다네'라고 했다. 시의 전체적인 구도를 잡고 의미를 확장시키는 데 이용한 것이다. 6구에서는 '현(玄)이라는 이름을 활용하도 했다. ②의 예 역시 연농(研農)이라는 호를 1구의 앞뒤에 배치하여 최성학은 "경학과 역사를 공부하여 글로 농사짓는 이가 되었다"고 했다. 상대방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다. ③에서는 나산(蘿山)이라는 호를 배치하여, "나의 입과 산장에서 책 베고 잠자니, 낮은 벼슬 머물러도 녹 때문에 버리지 못하네"라고 했다. 상대방이 어떤 삶의 자세를 지녔는지 말해준다. 이처럼 김석준은 상대방의 호나 자, 이름을 시 속에 배치하였는데, 이는 단순히 장난스럽게 글자를 놓아 재미를 더한다는 효과에 그치지 않는다. 시의 전체적인 구도를 확장시키고, 의미를 풍부하게 하면서, 상대방의 인품을

64) 김석준의 회인시에는 '奇遇'가 들어간 시구가 상당히 많다. 金相喜(文章磨蝨數應奇), 趙熙龍(縱橫亂抹轉多奇), 吳慶錫(君有奇才玉不如), 崔吉淳(期期一語還奇絕), 吳慶林(枝枝朶朶十分奇), 安東昇(任傑奇氣生), 金準榮(雙絕抱奇才), 安載健(奇麗得天然), 盧泳祺(外鈍內含奇) 등의 사례가 보인다.

65) 김석준, 『紅藥樓續懷人詩錄』, 제83수, 〈玄雲草 槩〉. “雲山生朱草, 服之可延年. 靈根已蔓苗, 芳名久必傳. 承紹愛何已, 詩筆玄又玄.”

66)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62수, 〈崔研農 性學〉. “研經鎔史作書農, 欲學眞詩下妙工. 綺歲英姿迷玉樹, 百花爛熳到春風.”

67)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36수, 〈朴蘿山 性浩〉. “蘿衣山 屋枕書眠, 薄宦蹉跎祿未捐. 修禊重題遜綽序, 風流不減永和年.”

드러내기 위한 방편으로 활용했다. 여타 회인시에서 자호는 상대방을 직접 지칭하는 수단으로만 사용하고 있을 뿐이고, 김석준과 같은 활용은 발견되지 않는다.⁶⁸⁾

萬梅花裏堪充隱	만 송이 매화, 꽃 속은 충은(充隱)에 알맞으니,
樹樹枝枝一首詩	나무마다 가지마다 한 수의 시로구나.
因病得閒須不惡	병으로 한가해도 나쁘지 않은 것은,
閉門却掃已多詩	문 닫고 길 쓸지 않아, 이미 시 많기 때문이네. ⁶⁹⁾

김병선(1830-?)은 이상적의 제자이자 김석준의 절친한 벗으로⁷⁰⁾, 김병선·김석준·최성학, 이용숙(李容肅)·변원규·강해수 여섯 사람은 『해객시초』를 함께 엮었으며, 김정희가 이상적에게 그려준 〈세한도(歲寒圖)〉를 이상적이 김병선에게 남겨주기도 했다.

이 시에서도 마찬가지로 김병선의 호인 ‘매은(梅隱)’을 이용해 시를 구성했다. 1구에 매(梅)와 은(隱)이라는 글자를 나누어 배치함으로써 시의 재미를 주고 있으며, 그 의미를 확장하여 시상을 전개했다. 2구는 김병선이 매화처럼 아름다운 시를 짓는 것으로 소일하여 많은 시를 남겼던 일을 말한다. 3·4구에서 병으로 인해 여가가 난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집에 틀어박혀 시를 짓는 벗의 모습을 형상화했다. 3구에서는 그의 이름인 병선(秉善)에서 ‘선(善)’ 자를 따왔는데, ‘불악(不惡)’은 곧 ‘선’이 되기 때문이다. 시의 창작은 글자의 적절한 안배가 가장 큰 관건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김석준의 회인시는 더 깊은 고심의 흔적이 엿보인다.

고사의 인용도 놓치지 않고 있다. 1구의 “충은(充隱)”은 『진서(晉書)』, 「환현전(桓玄傳)」에 나오는 내용으로, 은사가 아닌데 은사로 추천한 것을 말한다. 또한 4구의 “閉門却掃”는 『위서(魏書)』, 「일사열전(逸士列傳)」에 나오는 내용으로, 북위(北魏)의 이밀(李謐)이 “대문을 닫고서 정원의 길도 쓸지 않았으며, 생업은 돌보지 않은 채 독서만 일삼았다(杜門却掃, 棄產營書.)”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즉, 대문을 닫고서 정원의 길도 쓸지

68) 조희룡, 「懷人截句」, 제9수, 〈姜對山 安峽倅〉. “三歲不逢姜對山, 終教鄙吝定難刪. 遙知百里春風內, 拄笏憶人滄海間.”

69)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50수, 〈金梅隱 秉善〉.

70) 김석준, 『研白堂初集』 권1, “金秉善, 丁鶴喬, 崔性學, 徐秋堂等, 交友最厚.”

않는 것은 세상과 인연을 끊고 살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다.

秋史昔年呼我師	옛날 秋史께서 '나의 스승이다'라고 부르셨으니,
休嫌曾鞏獨無詩	曾鞏처럼 시 없다고 혐의할 것 없도다.
罡風驚起靑田鶴	세찬 바람에 푸른 밭의 학 놀라 날아가니,
樑月江南紀夢時	대들보에 달빛 들던 강남에서 꿈 적던 때. ⁷¹⁾

이청(李晴, 1793-1681)의 아명은 학래(鶴來)인데 학림(鶴林)마을에서 왔다고 하여 지은 것이다. 그의 호 '청전(靑田)' 역시 이름을 파자해 만든 것이다. 그는 다산이 강진 유배 시절 이뤘던 방대한 저술 작업에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한 인물이다. 1구에서 추사도 그의 박학에 대해 인정하여 스승이라고 말했고, 서유구(徐有集, 1764-1845)도 “마치 종을 치면 소리가 나는 것 같다”⁷²⁾며 묻기만 하면 곧바로 대답하는 지식에 대해 감탄했다. 2구에서는 이청을 당송팔대가 중 하나인 증공(曾鞏, 1019-1083)에 비유했는데, 증공은 문장은 많이 남겼지만 시는 전혀 남기지 않았다. 이청에게 시 짓는 재주는 없었음을 말한다. 4구는 달밤에 과거급제의 꿈을 꾸던 이청을 말하는 듯하나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다.⁷³⁾ 3구에서는 청전이라는 호와 아명의 앞글자인 '학(鶴)'을 붙였다. 청전은 시 속에서는 '푸른 밭의 의미이다. 3구에서 “푸른 밭의 학”이 세찬 바람에 놀라 날아가 버렸다는 것은 그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 아호처럼 학이 날아왔다가(鶴來) 날아가 버리는 것(鶴起)을 대비시켜 그의 덧없는 삶을 보여준다.

그는 1860년경 천문학 분야의 뛰어난 저술인 『정관편(井觀編)』을 완성했다. 이상적인 그와 함께 신분적 제약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공유하고 있었는데⁷⁴⁾, 그가 과거에 급제하지 못해 우물에 몸을 던져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러자 『정관편』이 그 조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며 그 책을 짓지 말았어야 했다고 하였다.⁷⁵⁾ 김석준 역시 그의 삶에 대해

71) 김석준, 『紅藥樓懷人詩錄』, 제28수, 〈李靑田 鶴來〉.

72) 玄鑑, 『岐亭詩集』 권5, 〈哀李靑田學來〉. “不操戈入茶山室, 如撞鐘爲楓石師.”

73) 이청의 행적과 시의 번역은 정민, 『삶을 바꾼 만남』(문학동네, 2011), 485쪽에서 도음 받았음을 밝힌다.

74) 이상직, 『恩誦堂集續集』 권8, 〈戲贈鶴來〉. “枯腸謾作不平鳴, 經笥便便誤此生. 方朔侏儒同一死, 莫將飢飽更關情.”

75) 이상직, 『恩誦堂集續集』 권8, 〈聞鶴來墜井而歿〉. “窮途一跌赴黃泉, 灑酒天涯醒水仙, 七十年來多著述, 如何絕筆井觀編. (君近著井觀編若干卷, 豈其書名成職耶?)”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으며, 그가 죽은 것은 실력이 아니라 시 때문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세찬 바람(罡風)’이라는 시어로, 부정적인 세태를 꼬집기도 했다.

남병철도 이청을 두고 회인시를 지었는데 그 시점은 이청이 51세 되던 해(1842)이다. 그가 다산을 도와 『대동수경(大東水經)』의 주석을 달았던 일과 문자학에 골몰하던 모습은 그 시기를 전후하여 있었던 일이다.⁷⁶⁾ 김석준의 회인시는 이청이 세상을 떠나고 8년 후에 지었다. 남병철의 회인시가 김석준의 것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그가 불행한 죽음을 맞이할 줄 몰랐기 때문이다. 김석준의 회인시는 인물의 순간적 장면만 포착한 것이 아니라, 삶 전체에 대한 관조를 바탕으로 한다.

이처럼 김석준 회인시의 흥미로운 점은 상대방의 호 또는 이름 등을 이용해 그것이 지닌 의미를 풀이하되 시의 전체적인 의미와 구도를 구성하여 대상 인물의 특징과 장점을 효과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독자로 하여금 글자를 찾도록 하는 재미 외에도 단순한 회인시의 구도에서 벗어나, 상대방에게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 김석준의 회인시에는 지금까지 제시한 것 외에도 다양한 방식의 회작시가 있는데, 이러한 경향은 조선 후기 한시의 회작화(戲作化) 경향과 그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보인다.⁷⁷⁾

玉圃以詩鳴	옥포는 시로 울었는데,
恐是不平鳴	아마 불평함으로 우는가 보다.
一生我欲鳴	나 역시 일생토록 울고자 했으나,
無乃窮以鳴	궁박하여 울 수가 없었네.
才年皆可鳴	재주나 나이는 울 만했으니,
爲國家善鳴	나라를 위해 잘 울었도다. ⁷⁸⁾

매 구마다 ‘명(鳴)’자를 넣은 파격적인 시다. 이 시는 한필우(韓必愚) 개인의 불우와 함께 김석준 자신의 모습도 담고 있어 당대 증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76) 남병철, 『규제유고』, 〈懷人詩三十二首〉. “李鶴來今鄴道元, 能教涇渭各清渾, 苦心老鶴宵鴉學, 低首平生許慎門.”

77) 안대회, 앞의 책, 247쪽 참조.

78) 김석준, 『紅藥樓續懷人詩錄』, 제93수, 〈韓玉圃 必愚 舉人〉.

김석준은 회인시에서 시대의 불합리를 꼬집으면서, 소외된 인물들의 마음과 공명하는 부분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는 중인 출신인 자신의 처지가 상대방에게 투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IV. 맺음말

김석준의 회인시는 스스로의 삶을 종합하고 정리한다는 성격이 강하다. 첫 번째 회인시는 죽음으로 인해 만날 수 없게 된 스승을 계기로 그때까지 교류했던 인물을 총망라해 지은 것이다. 두 번째 회인시 역시 자신의 삶이 끝나가는 시점에 죽음과 이별을 통해 만났던 인물에 대해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김석준이 쓸쓸하고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은, 회인시를 쓸 당시 상당수의 인물이 세상을 떠났고 지방으로 흩어져 다시 만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의 회인시에 지나친 슬픔이 배어 있지는 않다. 시인을 중심으로 공유될 수 있는 강렬한 사연을 거슬러 올라가 그때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추억하여 슬픔을 상쇄시키고 그리움의 감정을 극대화시켰기 때문이다. 김석준의 회인시의 표현 방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로 전고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뛰어난 부분을 부각시켰다. 조선과 중국의 명사를 기준으로 인물을 품평하되, 상대방의 개성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를 재료로 삼았다. 또한 상대방에 대해 자신과 상대방이 함께했던 추억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깊은 여운이 느껴지도록 했다.

두 번째로 복합적인 인간관계를 짧은 시구에 드러냈다. 시적 대상 외에 다른 사람의 시나 그림, 글씨 등을 매개로 3인 혹은 그 이상의 연결고리를 설정했다. 이는 일방적인 시선으로 상대방을 노래하는 구도의 여타 회인시와는 다르며, 더 많은 사람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김석준의 회인시는 시 자체만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우며, 주석과 함께 다른 사람의 시와 그림, 관련 사건 등을 찾아가며 읽어야 한다. 이로써 상대방에 대한 그리움이 커지고 더 많은 관계와 공유되는 사연들의 아련함을 느낄 수 있게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호를 시 속에 배치하여 읽는 사람에게 재미를

주고 있다. 단순히 장난스럽게 글자를 놓는 데 그치지 않고, 여기에 상대방의 삶과 인품에 대한 평가를 자연스럽게 삽입했다. 그러면서도 시의 전체 구도와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

참 고 문 헌

1. 원문 자료

- 김석준, 『研白堂初集』. 단국대학교소장본.
- _____, 『紅藥樓續懷人詩錄』. 이조 후기 여항문학총서 5, 여강출판사.
- _____, 『紅藥樓懷人詩錄』. 이조 후기 여항문학총서 5, 여강출판사.
- _____, 『孝里齋逸集』. 천리대도서관소장본.
- 南秉哲, 『圭齋遺藁』. 한국문집총간 316집,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 유득공·박제가, 『惠修妙品』. 필사본, 장서각소장.
- 유재건, 실시학사고전문학연구회 옮김, 『里鄉見聞錄』. 글항아리, 2008.
- 尹廷琦, 『舫山先生遺稿』. 『다산학단문헌집성』,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이상적 『恩誦堂集』. 한국문집총간 312집,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 조면호, 『옥수집』. 한국문집총간 속집 125집,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 조수삼, 『秋齋集』. 한국문집총간 271집, 한국고전번역원 영인본.

2. 연구논문 및 저서

- 김순애, 「김정희파의 회화관 연구」. 제3회 동원학술상 수상논문, 2001.
- 김용태, 「옥수 조면호의 한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4.
- 박종훈, 「초정 박제가의 회인시 소고」, 『한국언어문화』 30집, 2006.
- _____, 「조선 후기 왕사정 신운 시론 수용 양상: 한시 사가를 중심으로」. 『태동고전 연구』 24집, 2008.
- _____, 「매천 황현의 「회인시」에 드러난 현실 인식」. 『고시가연구』 28집, 2011.
- 서한석, 「김석준과 『효리재일집』에 대하여」. 『한문학보』 21집, 2009.
- 이철희, 「19세기 한중 문학 교류와 오승량」. 『대동문화연구』 73집, 2011.
- 정민, 『삶을 바꾼 만남』. 문학동네, 2011.
- 정일남, 「박제가 회인시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36집, 2005.
- 정후수, 「李尙迪의 〈懷人時〉考」. 『한성어문학』 6, 1987.
- 한영규, 「19세기 회인시의 양상과 조희룡의 〈회인절구〉」. 『반교어문연구』 6집, 1995.
- _____, 「추사의 말년 제자 김석준의 『연백당초집(研白堂初集)』」. 『문헌과 해석』 40집, 2007.
- _____, 「남병철 회인시 연구」. 『한문교육연구』 31호, 2008.
- _____, 『조희룡과 추사파 중인의 시대』. 학자원, 2012.

국 문 요 약

김석준(金奭準)은 두 차례에 걸쳐 회인시(懷人詩)를 지었다. 1869년에 지은 첫 번째 회인시는 스승의 죽음을 계기로 그때까지 교류했던 인물 82인을 망라해 지은 것이다. 1903년에 지은 두 번째 회인시는 자신의 삶이 끝나가는 시점에 죽음과 이별로 인해 만날 수 없게 된 인물 119인을 정리한 작업이다. 그 때문에 김석준의 회인시는 스스로의 삶을 종합하고 정리한다는 성격이 강하며, 시로 쓴 19세기 명사들의 인물지(人物誌)라는 성격도 지닌다.

회인시의 표현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미적 감각도 다르게 나타난다. 첫 번째로 전고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뛰어난 부분을 부각시키고, 시인과 상대방이 함께했던 추억을 공유함으로써 깊은 여운이 느껴지도록 했다. 두 번째로 복합적인 인간관계를 짧은 시구에 드러냈다. 시적 대상 외에 제3자의 시나 그림, 글씨 등을 매개로 3인 혹은 그 이상의 연결고리를 설정하여 그리움의 감정을 극대화했다. 그래서 회인시만 읽는 것으로는 숨어 있는 의미를 이해하기 어려우며, 주석과 함께 관련된 시와 그림을 찾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대의 지나 호를 시구에 배치하여 읽는 사람에게 재미를 준다. 특히 상대방의 삶과 인물에 대한 평가가 들어 있으면서도 시의 전체적인 구도와 의미를 벗어나지 않게 했다.

김석준이 시를 지을 시점에 대상 인물이 사망한 경우가 많았기에 인물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상대방의 인생 전체를 두고 관조하는 듯한 시가 많아, 일정 부분 만시(輓詩)의 경향을 띤다고도 하겠다.

투고일 2012. 12. 20.

심사일 2013. 1. 30.

게재 확정일 2013. 2. 27.

주제어(keyword) 김석준(金奭準, Kim Seok-jun), 회인시(懷人詩, hoein poems), 추사파(秋史派, Chusa group), 중인(中人, middle class people), 『홍약루회인시록(紅藥樓懷人詩錄)』(Hongrakru hoein poems collection), 『홍약루속회인시록(紅藥樓續懷人詩錄)』(Hongrakru Sok hoein poems collection), 여항문학(閔巷文學, middle class community literature)

